

# 미혼성인남녀의 섹슈얼리티에 관한 기초연구

## A Study on Premarital Adult of Sexuality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강사 박수선

교수 김명자

Dept.of Hom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Lecturer : Park Su Sun

Professor : Kim Myung Cha

### ● 목 차 ●

I. 문제의 제기

II. 섹슈얼리티 구성개념 및 관련연구동향

III. 연구방법 및 분석절차

IV. 결과 및 해석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n sexuality for the purpose of substantial verification, focusing on literature reviews of premarital sexuality. The Literature reviews included relevant studies of our society and its cultures such as premarital sexuality and behaviors, expressions of love or intimacy, contraception, abortion, sex education and sexuality in family contexts. The survey was conducted to 355 university students and 200 working premarital adults in Seoul, Gyeonggi and Gangwon areas. It has 21 questions to measure sexuality by sexual attitude sentence completion Scale (composed of 4 categories and options of the other items) which has been widely used by professional counsel institutes. Male and female students complete the sentence of this scale, then similar contents were classified. Love type test was developed by Hendrick & Hendrick (1986) was used to measure love and intimacy.

Results from the sentence completion for sexuality attitudes are generally as follows:

First of all, there was clear difference in male and female responses about each categories. For example, With regard to the questions on premarital sex with opposite sex friends of long time relationship, more than half of male students said it is all right, whereas more than half of female students answered to the same

questions that it can never be possible, with many answering 'I don't know', or leaving them unanswered. The survey result, masturbation answered that Female is needed however many Females actually don't it. But Male is almost necessary and conduct himself. On questions regarding, Homosexuality is both male and Female answered opposed.

Thes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premarital adults clearly open to issues on sexuality compared with the past, but they have not established their own sexual identity, which can be seen with big gap between male and female perspectives, due to experiencing confusion under the changing environment of the society.

**주제어(Key Words):** 미혼 성인남녀(premarital sexuality), 섹슈얼리티(sexuality)

## I. 문제의 제기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성(性)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사회에서의 성개념은 성행위 중심의 표현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섹스(sex)라는 용어는 생물학적인 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의 개념은 남녀의 성기 결합과 같은 신체에 한정된다(조영미, 2001). 이렇게 좁은 의미의 성의 개념이 사회전반의 가치관을 지배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성이란 드러내서는 안되는 것으로 은밀히 취급당해 왔으며 성에 대한 자연스러운 관심은 무시되기 쉽다. 성은 출산과 직결되는 것이며, 성인이 되어 결혼이라는 제도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되는 것으로 치부해버렸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사회에서는 한 개인이 태어나 자라면서 겪게 되는 몸의 변화나 성적 호기심, 성적 욕망, 친밀감에 대한 대부분의 이야기들을 결혼이라는 사회제도적 틀 안에서 해석하려고 하고 있고 그외의 단계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비공식적 영역으로 금기시되고 문제시되었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성에 대한 다양한 조사와 연구들의 대부분은 긍정적인 측면을 보거나 다양한 관점으로 성을 다루려는 시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주로 성에 대한 표면적인 화제나 문제 상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렇게 성과 관련된 문제상황만을 보는 협의의 관점에서 성을 보려는 시도들은 대부분 인간의 발달 단계와 관계성은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현재 성과학, 사회학, 여성학 등의 분야에서 도전을 받고 있다(조영미, 2001; Murray & Leigh, 1996; Weis, 1998ab).

Anthony(1996)는 성이란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맺게 되는 모든 인간관계와 사회적 틀 안에 자리잡고 있으며, 성이야말로 우리가 일상생활의 인간관계 속에 스스로를 위치 짓는 중요한 기준점이며 그것을 통해 삶의 모든 면을 다시 성찰하는 출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립되고 신비화된 성의 세계에 함몰되어서는 안되며, 연애·사랑·결혼·가족·외로움·증오·수치심 등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자리잡은 제도들과 인간적인 감정들이 뒤엎혀 있는 관계망으로써 성을 보아야 하고 이를 섹슈얼리티(sexuality)라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섹슈얼리티는 그 사회의 전반적인 정서나 관계성, 고유한 특성 등에 따라 매우 유동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한국 사회에 적합한 다양한 대상을 다룬 섹슈얼리티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여러 학문에서 각자의 시각을 가지고 학제적인 접근을 통하여 다양한 대상들의 섹슈얼리티를 다룬다면 인간의 정체성이나 관계성을 더욱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성관련 연구 대상은 청소년기의 문제상황이나 기혼 단계에 집중되어 있으며 미혼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실제적인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섹슈얼리티가 인간의 삶의 과정이라고 할 때 어느 한 시기에만 초점을 맞추어 문제중심적인 시각에서 전체를 평가한다는 것은 자칫하다가는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인간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이공간에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기본적인 발달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미혼의 성인남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성적 행동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제한하며 결혼이라는 제도를 벗어나는 행위로 간주하여

사회적으로 비난하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 미혼성인남녀라고 한다면 대학생과 결혼전 성인남녀를 들 수 있다<sup>1)</sup>. 이들은 대부분 1970년대 이후 출생자들로 산업화 시대를 겪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났으며, 입시위주의 학교 교육과 보수적인 성관념 지배하에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못하고 성장하였다. 1988년 올림픽 개최이후 서구의 개방적인 물결이 본격적으로 유입되었고 이들의 중·고등학교 시절은 서구와 일본의 성 개방문화가 진입하기 시작하는 시기였다. 이러한 가운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개인 활동의 자유가 커지고 새로운 생활양식을 경험하게 되는 등 급격한 변화시기를 겪게 되는데, 현재 미혼성인남녀들은 그 당시 X세대, N세대라고 불리며 신세대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자유로운 성개방 분위기와 상업적인 성문화의 발달, 남녀평등주의 등 사회가치의 변화를 겪으면서 성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 정립을 도전 받고 있지만 아직 전통적인 성규범과 급변하는 현실 속에 방황하는 상태라 할 수 있다. 현재의 미혼성인남녀들은 청소년들과 같이 성에 대해 많은 부분 완전히 개방적이지도 못하지만 또한 기성세대와 같이 성에 대해 가치를 두지 않거나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장해성, 2001). 이러한 현실에서 혼전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대학생과 미혼성인남녀 대상의 성의식 및 성행동 관련연구(강희선, 2001; 김향숙, 2001; 문인옥, 1997, 1998; 박희성 외 3인, 1995)나 관련 실태조사(경향신문, 2000. 10. 30; 동아일보 2001. 2. 23; 세계일보, 2000. 8. 11; 한겨레신문, 2001. 6. 20; 한국일보 2002. 10. 15<sup>2)</sup>)에서 보면 과거에 비해 매우 개방적으로 변화한 달라진 그들의 성태도를 알 수 있다.

이제 결혼전 성행동을 단순히 사회문제적 시각에서 보는 경향에서 벗어나 결혼전 성 경험이 이성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후의 관계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려는 시도(Cate et al., 1993)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청년기의 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는 청년기 성에 대한 이해와 이후의 결혼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앞으로의 결혼관과 가족관에 영향을 미칠

미혼성인남녀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연구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여성과 남성의 성별에 따라 성에 관한 관점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섹슈얼리티에 대한 연구가 페미니즘에서 출발한 이래로 인간의 성을 여성에 대한 남성의 차별과 권력기제(조영미, 2001; 한국여성연구소, 1999)로 보는 그들의 관점은 현재까지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인간은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 다른 대상과 관계를 맺고 친밀한 감정과 사랑을 느끼며 그 속에서 자신을 찾는 과정을 끊임없이 되풀이한다. 그 속에서 주체가 되는 남성과 여성은 자신이 생활하는 환경의 영향을 받게되는데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남성과 여성에게 공평한 기준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섹슈얼리티를 논할때는 바로 이러한 점, 남성과 여성이 특히 성과 관련하여 동등하게 취급받지 못하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시작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결혼이데올로기와 순결이데올로기도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가능하다(장필화, 1997).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혼전성관계라는 용어도 성관계란 결혼을 기준으로 가능하다는 의미를 함의하고 있으며, 결혼제도를 벗어난 모든 성관계나 섹슈얼리티에 대한 논의는 인정받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여기서 남성과 여성의 성태도나 성행동은 다르게 취급받고 있으며(장해성, 2001; 장필화, 1997; 조영미, 2001), 남녀 모두의 성을 왜곡시키기도 한다(박희성 외 3인, 1995). 이것은 이성교제 관계의 질이나 이후 결

- 1) 대한민국 민법 4조에 의하면 만 20세 이상이 되면 성인이라 명명한다. 우리 사회에서 20세란 대학 진학을 하는 경우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입학 시기가 된다.
- 2) 한국대학신문이 2002년 9월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전국 19개 대학 96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14일 발표한 '대학생 성의식 조사'에 따르면 이성간 동거에 대해 '상황에 따라 가능'(53.9%)하거나 '찬성한다'(8.0%)는 긍정적 의견이 '반대한다'(38.1%)는 의견에 비해 많았다.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응답이 전체 73.3%를 차지한 반면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16.9%에 그쳤다. 배우자 선택시 '육체적 순결'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39.3%)는 답변이 '중요하다'(30.2%)는 의견보다 많았으며 30.5%는 '모르겠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혼관, 가족관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미혼성인남녀들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귀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개인의 삶에서 성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결혼과 가족의 가치관이 변화하고 다양해지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사회구성의 기초가 되는 가족을 형성할 미혼성인남녀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이들의 섹슈얼리티를 만들어내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살펴봐야 하고 그들이 살아온 환경과 관련시켜야 한다. 그 이유는 다양한 섹슈얼리티를 이해하는 것이 그들의 존재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이며, 결혼관과 가족관을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제까지의 섹슈얼리티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살펴보고, 미혼 성인남녀들의 섹슈얼리티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실상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는 앞으로 진행될 보다 구체적인 미혼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하는 섹슈얼리티 연구의 출발점으로, 개인과 사회에 바람직한 섹슈얼리티 모델을 제시하고 성숙한 성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II. 섹슈얼리티 구성개념 및 관련연구동향

### 1. 섹슈얼리티의 정의 및 범위

우리 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성에 대한 관심은 많았지만 성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1980년대 중반 한국에서 처음으로 페미니즘이 성을 학문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이후 1990년대 들어서면서 성과 관련된 주제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남영주, 옥선화, 2000; 조영미, 2001).

인간의 성적 욕망과 성적 행위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회제도와 규범들을 설명하고 분석하는데 서로 대립적인 두 입장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그 양대 입장이 바로 본질론과 사회 구성론이다(조영미, 2001). 본질론에서는 인간의 성이란 생물학적 요소

와 같은 고정불변의 본질적인 것이며 성기결합중심으로 개념화하고 있으나 사회구성론에서는 인간의 성을 문화의존적이며, 관계적인 것, 비객관적인 자질이라고 하면서 개인이 처한 사회관계와 문화적 맥락에 따라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성에 대한 관점은 사회가 현대화됨에 따라 개인이 주체가 되어 사회문화적 관계에서 논해야 하는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다. Anthony(1996)에 의하면 전통사회와는 달리 자녀출산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진 현대 사회에서는 성이 단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선택하는 문제로 변해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라이프 스타일과 개인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충족시키는 성의 개념으로 들 수 있는 전성(全性)적인 의미인 섹슈얼리티는 신체와 자기정체성, 그리고 사회규범이 일차적으로 연결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Anthony, 1996; Harding, 2001). 섹슈얼리티란 단지 성기성적 행동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사회적 삶의 제 측면에서 나타나는 성적 의미를 갖는 모든 태도, 가치, 믿음, 행동들을 지칭하는 것(Stevi & Scott, 1996)으로 성을 다양한 사회 문화적 맥락들 내에서 모든 사회 관계들과의 작용을 통해 구성되는 것으로 보는 개념을 말한다(조영미, 2001).

섹슈얼리티는 더 이상 미리 정해진 자연적 조건으로서 단지 수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혹은 '계발해 나가는 것'이 되었다. 따라서 섹슈얼리티의 개념은 인간의 총체적인 면을 내포하여, 생물학적인 성(sex)의 개념에서 가능했던 것보다 더 큰 개방성과 노출 그리고 더 큰 깊이를 가지고 사람들이 인생의 보편적인 특성을 계획하는데 표준이 되고 있다(김경신, 2001).

이상과 같은 연구고찰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섹슈얼리티의 개념을 단순한 성기성적 행동의 의미를 넘어서 사회관계와 문화적 맥락속에서 이해함을 전제로 한다. 섹슈얼리티란 성적 욕망, 성적 정체성 및 성적 실천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적 감정과 성적으로 맺게 되는 관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규정한다.

## 2. 섹슈얼리티 연구 동향

섹슈얼리티에 대한 연구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와는 달리 서구 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으며 섹슈얼리티에 대한 연구를 하는 분야는 크게 성과학, 의학, 사회학, 심리학, 생물학, 가족학, 역사학, 문학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Weis, 1998b).

섹슈얼리티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한 개인에게만 포커스를 맞추고 종종 임상적인 시각에서 성욕구, 성반응, 성적문제나 이상성행동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다(McKinney & Sprecher, 1991; Weis, 1998ab). 이러한 주제들은 개인들의 섹슈얼리티를 설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지만 성적인 관계를 매우 함축적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

아직 우리 나라는 서구 사회에 비해 초기 단계에 불과하지만 여성학, 성과학 등의 분야에서는 타학문에 비해 먼저 성에 대한 중요성을 간파하고 관련 연구들을 꾸준히 진행시켜왔다. 각자 학문영역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성을 보는 관점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 여성학은 여성주의 시각으로, 성과학은 성행동을 주요 개념으로 성을 해석하고 있지만 성을 인간을 이해하는 중요한 주제로 보는 맥락은 동일하다 할 수 있다.

여기서는 현재까지 각 분야에서 이루어진 국내외 섹슈얼리티 관련 연구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이루어질 심층적이고 다양한 섹슈얼리티 연구에 대한 흐름을 잡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Gagnon & Simon(1973, 1987)은 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대인관계, 사회문화적 제도상에서 성적 친밀성, 성의식과 성행동과 가족환경등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Murray & Leigh(1995)는 섹슈얼리티를 다룰 때 대상자들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받아온 교육과 그 시대 연구 대상자에게 이슈가 되는 사회문화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파악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인 미혼성인남녀의 특성에 알맞게 사랑과 친밀감, 성의식과 성행동, 가족환경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성에 대해 보수적인 사회문화적 분위기에서

미혼성인남녀가 당면하게 될 피임 및 인공유산의 현실과 지금까지 받아왔던 교육적 실태 또한 그들의 성적행동, 성적 정체성 등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여 독립된 영역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광범위한 개념인 섹슈얼리티를 사랑과 친밀감, 성의식과 성행동, 피임과 인공유산, 성교육, 가족환경의 영향이라는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접근하고자 한다.

### 1) 사랑과 친밀감

섹슈얼리티는 두 대상간의 사랑과 친밀감을 그 기본으로 한다. Anthony(1996)는 현대사회에서의 인간의 관계성을 강조하면서 친밀감과 사랑, 그리고 섹슈얼리티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주장한다. 친밀감이란 한 개인이 상대방에게 가지고 있는 정서적 개입, 즉 근접감, 유대감, 지지 등을 의미하며(Sternberg, 1986), 상호 평등한 맥락 속에서 감정입을 통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Anthony, 1996)으로 Erikson(1950)은 성인초기 발달과업을 친밀감의 형성이라고 보고 이것이 형성되지 않으면 고립감의 위기를 겪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사랑이란 어느 정도 자기 심문(self-interrogation)을 가정하는 것으로 상호 느끼는 감정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며, 사랑하는 대상은 자신의 결여되어 있는 부분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존재로써 직접적으로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Anthony, 1996)

이렇게 섹슈얼리티를 이루는 중요한 중심요소인 사랑과 친밀감에 대한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테이트 관계에서의 사랑과 친밀감 역시 결혼 후 관계의 질을 결정할 만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간관계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본 연구들이 최근 들어서야 사회과학에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으며(이정은·최연실, 2002; Aron, Aron & Smollan, 1992) 친밀감은 주로 사랑과성의 하위영역(김경신 외 2인, 1997, Stenberg, 1986)으로 여겨져왔다.

최근 이루어진 국내외의 사랑과 친밀감에 관한 연구는 친밀감의 평가(Schaefer & Olson, 1981), 사

량과 공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Edgar, *et al.*, 1999; Long, *et al.*, 1993), 커플간의 친밀감과 성적 만족(Laurie, *et al.*, 1998), 친밀감과 피임사용의 관계(Davis & Bibace, 1999), 사랑과 친밀감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gender에 대한 연구(Dion & Dion, 1993; Ridley, 1993) 친밀감과 정체성과의 관계(Whitbourne & Ebmeyer, 1990), 친밀감과 원가족과의 관계(차정화·전영주, 2002), 사회적 성과 자기개발(최연실, 1999)에 대한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성인 초기의 이성교제는 자아정체감의 발달로 인한 친밀감의 욕구와 관련되는 행위이며(차정화·전영주, 2002) 이후 결혼과 가족생활, 부모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친밀감과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앞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2) 성의식 및 성행동

국내의 연구들은 성의식과 성행동을 분리하여 본 연구보다 성의식과 성행동을 연결시켜 본 연구들이 대다수이므로 이들을 구분하지 않고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성의식 및 성행동은 개인의 입장에서 본 시각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본 연구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므로 이를 우리 사회의 문화나 제도와 연결시켜 다른 국내연구들도 함께 포함하였다.

청소년과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성정체성에 관한 연구(김현희, 1999; 장해성, 2001; 조한혜정, 1998; 엄연수, 1997; 조윤정, 1995; Gina, 1999)와 성의식 및 성행동에 대한 연구(권기범, 2001; 김상원, 1998; 김명숙, 1992; 김향숙, 2000; 김혜원·이혜경, 2000; 문유선, 1994; 장순복 외 5인, 1998; 정희정, 2001; 박상화, 한정호, 1998; 이찬, 1997; 임종권 외 4인, 1994; 박희성의 3인, 1995; Daniel *et al.*, 1998; Dawn *et al.*, 1999; Dilorio *et al.*, 1992; Steele, 1999; Luster & Small, 1994ab, 1997; Paige, *et al.*, 2001; Pete & DeSantis, 1990), 결혼제도 및 성문화 관련 연구(양순옥, 2000; 임경희, 1992; 장필화, 1997; 정경자, 1990; 차선희, 1999) 등이 있다.

최근 들어 인간이 어떻게 섹슈얼리티를 만들어가

는가 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관점들이 대두되고 있으며 그러한 점을 연구하기 위하여 실제적인 그들의 삶의 호흡을 담아내는데 용이한 질적 연구방법을 쓰는 연구(장해성, 2001; 조한혜정, 1998; Steele, 1999)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대부분의 성의식과 성행동에 관한 연구들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자리잡은 제도들과 인간적인 감정들이 혼재되어 있는 관계망(Anthony, 1996)으로 섹슈얼리티를 자연스럽게 보기보다는 문제시되는 면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는 것이 대부분이다. 바로 이러한 점들이 우리가 섹슈얼리티를 인간의 삶 전체와 동일하다고 보는 관점(Harding, 2001)으로 전환하는데 방해하는 요인이 되며 이러한 경향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Murray & Leigh, 1995; Weis, 1998ab).

이제는 좀 더 넓고 긍정적인 시각에서, 문제보다 인간 전체 삶을 대상으로 그들의 섹슈얼리티를 탐구해볼 수 있는 실제적인 성의식 및 성행동에 대한 연구들이 필요하다.

## 3) 피임 및 인공유산

섹슈얼리티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영역으로 피임 및 인공유산에 관한 연구(강희선, 2001; 고명숙, 1994; 권태환 외 2인, 1996; 김미중, 2000; 김성희, 유은광, 2000; 신혜숙, 1998; 장수정, 1998; 엄영란, 1996; 이경혜, 고명숙, 1994; 이숙경, 1993; 임순영, 1991; 이혜진, 1997; Adih & Alexander, 1999; Agostino & Wahlberg, 1991; Baele *et al.*, 2001; Davis & Bibace, 1999; Dilorio *et al.*, 1992)를 들 수 있다.

이들을 하나의 새로운 영역으로 구분하여 다룬 이유는 일반적인 성의식과 성행동 연구들은 대상과 영역을 광범위하게 조사함으로써 인간의 성가치관과 성행위를 다루는데 있어 중요한 피임과 그에 따른 인공유산 문제를 뚜렷이 나타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성행위를 하고 있고 할 몸이라면 피임은 필수적 요소이며 인공유산은 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제시한 많은 연구들은 피임과 인공유산을 함께 다루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미혼, 기혼을 막론하고 여성의 인공유산은 연간

150만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가장 시급한 문제이며 남성과 여성의 새로운 시각전환이 강하게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 주제에 대한 국내의 연구들 대부분이 여성학과 간호학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므로 가족원의 삶의 질 향상(유영주, 1999)을 우선으로 하는 가족학에서도 이 문제가 결혼결정에 미치는 영향, 부부간의 삶의 질 향상과의 관계, 이후 부모됨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 4) 성교육

우리 사회에서 성교육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최근으로 성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위기에서 성을 주제로 교육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흥미를 끌고 관심의 대상이 된다. 비록 일부의 사람들이 성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 성이 너무 개방됨으로써 오히려 청소년들의 성관계를 조장하고 크고 작은 성문제나 성범죄가 급증하는 등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사실이지만 성이 인간의 일생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장해성, 2001; 조영미, 2001; Anthoy, 1996)을 염두에 둔다면 성교육은 인간의 전발달단계에서 실시되어야 할만큼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성교육 관련 연구(김경미, 2002; 김경신, 2001; 김현미, 1997; 박미숙, 2002; 박춘화·박금자, 2002; 양원정, 2002; 이명화, 2000; Brock & Jennings, 1993; McDermott *et al.*, 1999; Michelle, 2001; Robin *et al.*, 1997; Susan, 2000)들에서는 올바른 성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형성 가능한 바람직한 성가치관, 정확한 성지식, 합리적인 성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현재까지의 이루어진 성교육의 대부분이 청소년들의 성관계를 걱정하고 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미혼모, 낙태, 성폭력 등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앞으로의 성교육은 성의 긍정적인 면을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공개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성숙한 관점에서 성을 바라보는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5) 가족환경의 영향

일반적으로 섹슈얼리티에 대한 연구와 가족은 연결이 되면서도 구분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Murray & Leigh, 1995).

전통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규범들에 대한 최초의 사회화 교육 기관은 가족이다(Youniss & Smollar, 1985). 한 개인의 사회화는 처음으로 맺게되는 연결망, 즉 가족관계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다. 우리사회는 전통적으로 유교를 바탕으로 개인의 성적 쾌락이나 욕구 충족은 가족을 구성하고 유지시키기 위한 것 이외의 것이라 여겨 무시당해 왔다. 그러므로 우리 가족안에서 자녀들에게 성을 개방적으로 알려주고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주변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만의 섹슈얼리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위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까닭에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은 자라면서 그들의 자연스러운 성적 욕구나 관심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여기고 억누르며 부모보다는 또래집단에서 그릇된 정보를 얻게되며(김향숙, 2001; 문인옥, 1997; 1998; Thornburg, 1982), 그러한채로 성인이 되어 한 가족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섹슈얼리티 형성에 대한 가족의 영향력은 서구에서 진행된 연구들에서 계속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Steele(1999)의 연구에 의하면 인터뷰한 십대들은 부모가 이야기하는 것과 부모가 이야기하는 이성에 대한 이미지, 본인에게 당부하는 말, 태도 등이 그들의 생활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문헌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다수의 외국 문헌(Brock & Jennings, 1993; Hutchinson & Cooney, 1998; Laurie *et al.*, 2000; Luster & Small, 1994ab; Michelle, 2001; Miller, 1993; Miller & Moore, 1990; Steele, 1999; Youniss, 1985)들에서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정도와 가족관계, 가족기능과 자녀의 성행동 여부와 정도, 성문제와의 관련성에 대해 밝히고자 하는 주제들이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어 국내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Murray & Leigh(1995)는 가족은 아동과 청소년의 섹슈얼리티 학습에 가장 중요한 환경라고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기존의 성과학에서는 최근 들어 이론

적 정립의 필요성을 크게 깨닫고 이론적 구조의 개념 재정의와 이론적 개념과 관련된 경험적인 설명 모델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발표 논문들에서(Jone *et al.*, 1998; Matthew & Donn, 1998; Monica, 1998; Weis, 1998ab) 지속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중 대표적인 연구로 신경정신학, 사회학, 생물학, 가정학, 가족학, 역사학, 문학등의 분야에서 사용되는 39개의 이론적 분석틀을 분석하여 설명한 Weis(1998ab)의 논문을 들 수 있다. 그는 전통적으로 가족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연구는 사회학에서부터 파생된 이론적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가족체계이론(family system theory)을 가족학 연구분야에서의 대표적인 이론적 분석틀로 평가하였다(Weis, 1998b). 여러 학자들이 그들의 연구(Murray & Leigh, 1995; Weis, 1998ab)에서 가족학은 전통적인 섹슈얼리티 연구에 대한 여러 가지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우리가 진정으로 섹슈얼리티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밝히고 있다. 미셸 푸코는 성의 역사란 저서에서 가족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된 사랑이 섹슈얼리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침묵하는 것에 안타까워하면서 현대가족의 형성과 사랑, 섹슈얼리티와의 관계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Foucault, 1981).

### III. 연구방법 및 분석절차

#### 1. 연구 방법

현재 우리 사회 미혼 성인남녀의 섹슈얼리티의 실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섹슈얼리티 전반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성태도 문장완성검사와 사랑 유형검사를 함께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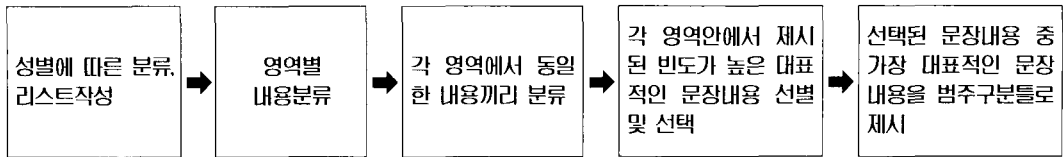
앞에서 제시한 섹슈얼리티의 5가지 영역 중에서 사랑과 친밀감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4영역(성의식 및 성행동, 피임과 인공유산, 성교육, 가족환경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문장완성검사는 자신의 생각을 보다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다. 우리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성에 대해 자유롭게 행동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시기인 대학시기부터 결혼 전 미혼성인까지의 남녀를 대상으로 이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전반적인 가치관을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검사는 '아하 YMCA 청소년 성문화센터' 성교육 담당팀에서 10년 동안의 성교육 제작, 실시 및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현재 성상담이나 성교육 현장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에 적합하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응답자의 개인적인 생각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미혼성인 남녀의 섹슈얼리티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효과적인 검사지라 할 수 있다. 이 조사는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성적반응, 순결과 낙태에 대한 생각, 결혼 전 성관계에 대한 태도, 부모님의 성에 대한 인식, 성행동에 대한 남녀의 차이인식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사랑과 친밀감 영역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사랑유형검사는 Hendrick & Hendrick(1986)이 제작한 척도로써 낭만적 사랑, 유희적 사랑, 동료적 사랑, 실용적 사랑, 소유적 사랑, 이타적 사랑 등 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이 척도는 이미 실제 수업이나 상담 및 교육 현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도구로 본 조사에서도 미혼 성인남녀 표본에서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미혼 성인남녀대상 성교육과 대학강의에서 약 20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항의 정확한 의미 전달이나 검사 수행의 용이성 등에서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틀은 몇단계를 거쳐 이루어졌다. 수집된 설문지를 대상자의 성별에 따라 나누어 분리한 후 연구대상이 응답한 내용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숙독하여 문항별로 분류화한 후 리스트 작성을 하여 가능한 모든 내용을 정리하였다. 정리한 내용들을 자세히 분석하여 비슷한 부분끼리 하나의 범주로 만들었으며, 성별에 따라 비교하여 최종적인 분석이 이루어졌다. 분석절차에서는 내적타당성 검증을 위해 박사급 동일전공자 2인의 도움을 받아 2





<그림 1> 자료 분석 절차

인 모두의 동의를 얻는 확인절차가 병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문장완성검사는 특성상 응답 내용이 매우 다양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로 제시하기가 어렵고, 기존의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한 연구와 같이 응답내용을 자세히 서술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응답자의 모든 의견들을 모아 비슷한 의미끼리 묶어 구분시킨 후 주요 내용을 표로 제시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각 표에 범주들로 제시된 문장은 관련내용 중 가장 대표적인 내용을 선택하여 작성한 것으로 각 범주안에 속한 전체적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기에 용이하도록 하였다(그림 1 참조).

2. 연구대상

서울소재 S여대와 S대, 강원소재 K대학의 미혼 남녀 대학생 355명(여자대학생 201명 남자 대학생 154명)과 직업을 갖고 있는 미혼 성인남녀 각각 100명씩 총 200명, 전체 555명을 대상으로 2003년 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IV. 결과 및 해석

1. 성의식 및 성행동 영역

섹슈얼리티에 대한 연구에서 많은 부분들을 차지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변수	구분		빈도(%)
성별	남		254(46%)
	여		301(54%)
연령	남	20-24세이하	138(54.3%)
		25-29세이하	80(31.5%)
		30세 이상	36(14.2%)
	여	20-24세 이하	227(75.4%)
		25-29세 이하	54(17.9%)
		30세 이상	20(6.6%)
학년 (대학생응답자)	남	1학년	102(66.2%)
		2학년	27(17.5%)
		3학년	13(8.4%)
		4학년	12(7.9%)
	여	1학년	87(43.3%)
		2학년	79(39.3%)
		3학년	18(8.9%)
		4학년	17(8.5%)

하고 있는 성의식 및 성행동에 대한 미혼 성인남녀의 실제적인 생각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검사지에 서는 성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 성적반응에 대한 생각, 순결과 처녀막 그리고 결혼 전 성관계에 대한 생각, 그밖에 자위행위와 동성애에 대한 견해 등을 질문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성에 대한 의식

성태도 문장완성검사의 첫 번째 문항은 성에 대한 개인의 일반적인 의식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성이란 단어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것을 답하게 하였다.

대상자들의 성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여 많은 여성 응답자가 남성 응답자에 비해 성에 대해 두렵고 거부감이 드는 등의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응답자 중에서는 남성 응답자들과는 달리 성에 대해 전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인 대상이 아무도 없었으며, 무언지 모르는 부담감과 억눌림을 같이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라 성을 다르게 인식하는 성의 이중기준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며, 여성이 응답한 부정적인 느낌은 여성만이 겪을 것이라 예상되는 예기치 못한 결혼 전 임신이나 낙태, 성폭력 등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여성들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성에 대해 남성과 여성이 동일하게 인식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성에 대한 기초인식부터 양성평등 지향의 교육을 시급히 실시해야 함을 보여준다.

### 2) 자신의 성적반응에 대한 생각

자신에게 일어나는 성적 반응에 대한 응답자들의 내용도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여성 응답자의 경우 자신의 성적반응에 대해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생각함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여성에게 적용되는 성에 대한 폐쇄적인 기준에 맞춰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남성 응답자들의 경우 대부분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오히려 분출에 대한 불만도 나타내 성적 반응에 대한 기본적인 차이를 볼 수 있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표 2〉 성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

여성	남성
<b>두렵고 어색한 이미지</b>	<b>어색하고 민망한 이미지</b>
두렵다. 어색하다. 어렵다. 깔끄럽다. 무섭다.	어색해진다. 민망하다.
<b>민망한 이미지</b>	<b>웁뭉하고 이상한 이미지</b>
민망하다. 입에 담기가 창피하다. 부끄럽다.	웁뭉이 난다. 웁뭉하다. 기분이 이상하다. 야한 생각이 난다. 남성과 여성이 떠오르고 포르노가 떠오른다.
<b>이상하고 거부감이 드는 이미지</b>	<b>즐겁고 아름다운 이미지</b>
남성주도적으로 뭔가 막연하고 이상하다. 퇴폐스럽다. 불결하다는 생각이 든다. 안좋고 무언가 비밀스럽다. 징그럽다. 거부감이 든다. 괴상하다	즐겁다. 좋다. 부부간의 아름다운 성이 떠오른다
<b>생물학적 이미지와 성관계</b>	<b>생물학적 이미지와 성관계</b>
생물학적인 남성과 여성, 성관계, 생명	남성과 여성, 여성, 성관계, 생명
<b>그밖의 이미지</b>	<b>그밖의 이미지</b>
성교육, 아무렇지도 않다. 아무 생각이 없다. 신기하고 즐겁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담이 간다. 가볍게 느껴진다. 아름답지만 자칫하면 더러워질 수 있는 몸쓸 것, 생각이 복잡하다	신비감이 떠오르지 않는다 성교육

〈표 3〉 자신의 성적 반응에 대한 생각

여성	남성
자연스럽다는 생각	자연스럽다는 생각
비정상은 아니구나 하고 생각. 긍정적이다. 자연스러운 현상 나도 여자이고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	당연하다.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본능적인 것이다.
부정적이고 수치스럽다는 생각	부정적이고 수치스럽다는 생각
부정적으로 생각 기분이 나쁘다. 때로는 내가 싫어진다. 놀란다. 당황한다. 창피하다. 수치스럽고 숨기고 싶다. 약간 두렵다.	없음
기타	기타
잘 모르겠다. 결과 속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무딘 척을 한다. 어쩔 땐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신기하다. 가끔씩 너무 자주 일어나서 당황하고 짜증이 나기도 한다.	나의 성적 반응에 실망한 적도 있다. 정상적이지만 조금은 변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실행은 못하지만 자제하려고 애쓴다. 지극히 정상이지만 분출욕구가 심하다.

성적 반응을 보이는 자신이 수치스럽고 싫어진다는 반응도 보임으로써 여성에게 내재화된 성에 대한 편견이 여성 스스로를 억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데이트 커플간에 사랑의 감정을 느끼거나 스킨십을 할 때 자신의 몸에서 일어난 성적 반응에 대해 성별에 따라 다르게 인식하고 행동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데이트 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자신의 성적 의사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더구나 성에 대해 개방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우리 사회의 미혼 여성들이 성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되고 남성과의 성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차가 더욱 벌어지게 되며 혼란을 호소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연쇄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 3) 순결과 처녀막에 대한 생각

먼저 순결이라는 단어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생각을 물어보는 문항에서 여성들은 그들에게 부과되는 순결의 사회적 의미와 관련하여 불공평하며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다수였다. 특히 여성 응답자들은 순결이란 사회문화적으로 남성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여성만을 억압하는 차별적인 것이라 생각하여

양성 모두 평등한 순결 의미를 적용받기를 강력히 원했다. 남성 응답자들의 생각도 과거에 비해 많은 변화를 보였지만 아직도 많은 남성들이 순결한 여성이란 깨끗하고 신성한 여성을 지칭하며 순결은 꼭 지켜야 한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 순결에 대한 남녀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요즘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연구분야나 단체에서 순결이라는 단어 자체에 남성중심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 용어를 쓰지 않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진정한 순결의 의미란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순결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은 위에서 제시한 분석 결과에 비추어봤을 때 앞으로 미혼 성인남녀 대상의 연구에서 반드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과제라 생각한다.

다음으로 순결에 대한 성별의 차이와 유사하게 처녀막의 인식도 남녀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였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많은 여성들이 처녀막이란 남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것에 대해 커다란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처녀막이라는 이름에 담고 있는 사회적 의미와 억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였는데, 성 관계를 한 번도 하지 않는 처녀들만이 가지고 있는

〈표 4〉 순결에 대한 생각

여성	남성
<b>불공평하며 부정적이라는 의견</b>	<b>중요하지 않다는 의견</b>
<p>구시대적인 발상. 구시대의 유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고지식하고 답답하다. 거부감이 든다.</p> <p>여성차별적이다. 불평등, 불공평하다고 생각 여성에게만 통용되는 단어로 쓰이는 것 같아서 불쾌하다. 고리타분하고 여자의 의무인 것 같아 거부감이 든다. 여성을 얹매이는 수단. 지켜야 하는 여성만의 부담 왜 여성에게만 강조해왔지만, 우리 사회가 변화는 하고 있지만 아직 더 많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자신의 의지에 의한 순결은 상관없는데 단어자체에 묻어나는 관습에 의해 익혀진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싫다. 한쪽의(여성의) 육체적 순결만을 강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남성도 순결을 지켜라. 남녀모두 진실하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자는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야 할, 남자는 목숨처럼 지켜야 할 개념이라 생각한다. 남자의 순결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어이없다. 웃긴다. 짜증이 난다.</p>	<p>들을 때마다 왜 그런 단어가 있는지 모르겠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p>
<b>긍정적이며 꼭 지켜야 한다는 의견</b>	<b>긍정적이며 처녀가 생각난다는 의견</b>
<p>아름답다고 생각. 순수하고 청초한 이미지. 꼭 순결을 지켜야 하겠다는 생각. 기록해 보인다.</p>	<p>지켜야 하는 생각이 든다. 설레인다. 처녀가 생각난다. 깨끗해 보인다. 신성한 것이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른다. 존경스러워 보인다.</p>
<b>주관적인 선택이라는 의견</b>	<b>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의견</b>
<p>순결을 지키는 것은 자신의 주관에 따르는 것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겐 별 상관없다는 생각한다.</p>	<p>관념의 차이라는 생각이 든다.</p>
<b>기타 의견</b>	<b>기타 의견</b>
<p>거짓말이란 생각이 든다. 조금 구시대적이지만 아직 한국사회에서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좋은 단어이지만 요새는 다른 생각을 한다 아름답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p>	<p>이중적이라 생각이 든다. 지켜야 하지만 강제성은 없는 것이다. 사회문화적 틀 순결은 남녀 모두 지켜야 좋은 것 같다.</p>

얇은 막이라는 일반적인 처녀막이란 개념자체가 현대 사회에서 알려진대로 옳은 개념이 아니며, 남성들에게는 절대 해당될 수 없는 여성들에게만 집중되는 불평등한 구속이라는 의미의 표현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실제적으로 현재 우리 사회 성교육 현장에서는 처녀막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으며, 새로운 알맞은 이름을 찾고 있는 실

정이다.

그러나 많은 남성 응답자들은 처녀막을 아직 여성의 순결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으며 남성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여성은 있어야 한다는 응답자들이 대다수여서 남녀의 뚜렷한 의식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운동으로 파열될 수 있는 현실에 대해서 '내 여성은 운동을 해도 안된다'라고

응답하고 '결혼하는 남편에 대한 배려이며 일종의 보너스' 라고 한 내용은 많은 여성 응답자들이 표현한 것과 같이 남성 중심적인 처녀막의 개념을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4) 결혼 전 성관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

미혼의 성관계에 대해 많은 경우 찬성의 뜻을 표현했지만 여성 응답자는 사랑, 책임, 결혼 등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는 생각이 대부분이었다. 성개방 풍토가 확산되어 과거에 비해 결혼 전 성관계에 대해 자유로운 분위기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여성들의 이성교제는 관계 중심적이며 혼전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전통적인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사회문화의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다(박희성의 3인, 1995; 장필화, 1997; Campbell, Peplau & DeBro, 1992; Gentry, 1998; Kelly & Bazzini, 2001).

또한 개인의 선택이라고 보는 시각도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할 것은 개인의 결혼 전 성관계 유무만을 따지기보다는 개인이 각자 처한 상황에 맞춰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여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가에 있다. 특히 여성의 입장에서 자신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주체적인 성적 의사결정자로서의 능력을 키우는 체계적인 교육과 환경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

<표 5> 처녀막에 대한 생각

여성	남성
남성들이 만든 것이며 여성을 억압한다는 의견	별의미가 없으며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
남자들의 욕심이라 본다. 남자들이 정해놓은 쓸데없는 단어이다. 남자들의 환상이라고 생각한다. 왜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지, 특히 한국 남성들에게 반문이 생긴다. 사회적으로 여성을 가두어 놓는 일이다. 여성의 자유로움을 막는 하나이다. 이름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다.	큰 의미가 없다. 요즘은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지므로 중요하지 않다.
별의미가 없으며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	
별의미 없는 것이고 중요하지 않다. 형식적이고 고정관념이라 생각한다. 이것을 순결의 잣대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요하다는 의견	필요하는 의견
미혼 여성에겐 생명이라 생각한다. 고귀하다. 중요하다. 여자의 유일한 보물이라고 생각한다.	여성의 순결의 상징이라고 생각한다. 성관계를 하나도 안한 여자에게만 있는 것이다. 결혼하는 남편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한다. 일종의 보너스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있으면 좋겠다. 필요하다고 본다. 사랑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건드려줘야 하는거라 생각한다. 운동을 하면 없어도 된다고 한다. 그래서 내 여자는 운동도 하면 안된다.
기타 의견	기타 의견
예전에는 처녀와 아닌 것을 구분했었지만 지금은 그런 보수적인 생각을 안하려고 노력한다. 그냥 신체 기관 중 하나일 뿐이다.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이다. 신체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신고식같다는 생각을 한다.

〈표 6〉 결혼 전 성관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

여성	남성
<b>가능하고 필요하다는 입장</b>	<b>찬성하며 문제없다는 입장</b>
찬성이다. 필요하다. 책임을 다해 사랑한다면 문제없다. 서로 좋아하고 결혼할 마음이 있다면 상관없다. 순결은 지킬 필요가 없다. 임신만 안된다면 가능하다. 해보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찬성이다. 정말 사랑하고 서로 원한다면 문제없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b>개인의 선택이라는 입장</b>	<b>개인의 선택이라는 입장</b>
당사자 맘이다.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는 개인의 선택일뿐이다.	당사자 맘이다.
<b>부정적이며 손해라는 입장</b>	<b>부정적인 입장</b>
여자만 손해일수 있다. 관계를 깨드릴 수 있다. 결혼 후에 하자. 순결을 지키는 것이 배우자에 대한 배려이다. 웬만하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별로 하고 싶지 않다. 다소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
<b>기타의견</b>	<b>기타의견</b>
반대하지는 않지만 나는 싫다. 강요하는 사람이 싫다. 아직 모르겠다.	있을 수도 있고 당연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거부 반응도 있다. 잘 모르겠다. 아무 생각 없다.

### 5) 기타 문항에 대한 의견

마지막으로 미혼 성인남녀의 성태도와 성행동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조사에서의 기타 문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자위행위에 대한 생각을 묻는 문항에서 미혼성인 남녀 모두 자연스럽게 인식한다는 유사한 의견도 많았지만 다수의 응답에서 남녀의 뚜렷한 의식차이를 볼 수 있었다. 여성의 자위행위에 대해 여성 응답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남성 응답자들은 변태적 행위거나 남성이 없는 여성이 하는 행위라는 내용들이 다수 있었다. 또한 몇몇 남성 응답자들 자신의 자위행위가 성폭력이나 공격성을 저하시키는 필수적 요소라고 하였으며, 이것으로서 성범죄 예방도 가능하다고 주장한 응답자도 있었다. 이러한 주장의 바탕에는 남성의 성적욕구와 충동은 어떤 방식으로든 해소해야하며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남성중심의 성문화와 관련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자위행위는 요즘 들어 인간의 발달단계에서 정상적인 인간의 성욕을 해소하는 자

연스러운 행위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소아청소년정신건강클리닉, 2003) 이것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존재하며 성별에 대한 인식차이가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미혼 성인남녀 모두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동성애자란 같은 성을 사랑하는 성적 정체성을 가진 자(윤가현, 2001)를 말하며 이상성행동자들과는 구분되는 성적소수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성의 다양성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면서 잘못된 편견으로 이들을 평가하고 있다. 성의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때 보다 열린 시각으로의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 2. 피임과 인공유산

섹슈얼리티에 대한 미혼 성인남녀의 실제적인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피임과 인공유산에 대해 알아

〈표 7〉 미혼 성인남녀의 인공유산에 대한 생각

여성	남성
가능하며 정당하다는 입장	가능하고 필요하다는 입장
여성을 성적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다. 정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능하다.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입장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입장
불가피하다면 할 수 있다. 결코 해서는 안되지만 원하지 않는 임신이 된다면 난 낙태를 고려 할 것이다. 내가 미혼이고 내가 사회에서 아이를 낳아 남부럽지 않게 키울 수 있고 정당하다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사회악이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필요악이다.	원칙적으로는 안되지만 필요하다. 성폭력과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 낳아놓고 잘 키우지 못할 바에는 낙태하는 것도 괜찮다. 필요악이다. 살인이지만 이해한다.
부정적인 입장	부정적인 입장
자기 몸을 버리는 것이다. 절대로 안된다. 이것은 살인이다.	잘못된 것이다.
기타 의견	기타 의견
애매하다. 나쁜 것이므로 피임을 확실히 해야한다. 없어져야 하지만 절대 안 없어질 것이다.	없음

보았다. 많은 남녀 응답자들이 피임은 꼭 필요하다는 동일한 생각을 하면서도 구체적인 피임방법 선택에서는 성별에 따라 다른 의견을 보였다. 여성 응답자들은 피임방법으로 선행연구 연구결과 (Campbell, Peplau & DeBro, 1992; Jefferson, 2002; Kelly & Bazzini, 2001)와 동일하게 콘돔을 선호하는 반면 남성 응답자들은 콘돔사용보다는 여성의 생리주기를 체크하는 월경주기법이나 질외사정법을 주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성 응답자들이 사용하는 이 방법들은 현재 피임법으로 분류되기 힘들 정도로 피임실패율이 높은 방법으로 피임방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여성 응답자들이 선호하는 콘돔 사용방법에서도 언제 착용할 것인지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올바른 지식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남녀 모두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소에 피임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성교시 올바른 피임법을

이용하는 미혼 성인남녀들은 이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성교육이 실제적이며 구체적으로 다음 세대들을 지도해야함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인공유산에 대해 대체로 여성과 남성 모두 해서는 안되는 것이지만 분명히 필요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인공유산은 분명히 여성이나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회적 현실과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그전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분명히 짚어야함을 남녀 응답자 모두 이야기하고 있었다.

인공유산에 대한 논란은 누구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현재 생명존중이나 여성의 선택권이나 하는 인공유산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인해 찬반의 양립적인 사회여론(여성신문, 2003. 6. 27)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이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현재 관점의 차이를 논하기 이전에 연간 150만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이상의 인공유산이 이루어지는 우리 사회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당장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고정적인 선입관의 배제와 실질적인 성교육이다. 많은 응답자들이 '필요악'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일어나야 하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발생하게 될 문제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그들이 왜 이 상황까지 오게 되었고 어떠한 이유로 인공유산을 결심하게 되었는지 등에 대한 실제적인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인공유산을 선택해야하는 상황이란 임신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여성이기 때문에 혼자서만

해결해야 되는 단순한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임신한 여성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어떠한 선입관도 없이 자신에게 알맞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똑같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하는 사회적 차원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커다란 문제라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 3. 가족환경의 영향

가족안에서의 미혼 성인남녀의 섹슈얼리티 형성

〈표 8〉 자신이 결혼 전 성관계 한 것을 부모님이 알게 되었을 때 예상 반응

여성	남성
<b>부정적인 반응</b>	<b>부정적인 반응</b>
호적을 파버리실 것이다. 기절하신다. 기절초풍하시고 같이 죽자고 하실 것이다. 날 죽이실 것이다. 쫓겨난다. 죽도록 맞을 것이다. 실망하실 것이다. 자식취급을 안하실 것이다.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이다. 날 더럽다고 생각하실 것이다. 나에게 심한 모욕을 주실 것이다.	맞을 것이다. 혼내실 것이다. 나쁘게 보실 것이다. 걱정하실 것이다.
<b>숨겨야 하며 잘 모르실 것이라는 의견</b>	<b>절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의견</b>
죽이려고 하겠지만 끝까지 숨겨야 한다. 한번도 그런 이야기를 안해서 잘 모르실 것이다.	절대 그런 얘기는 안한다.
<b>당당하고 부끄럽지 않다는 의견</b>	<b>당당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의견</b>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부끄러운 것이라면 하지 않을 것이다. 민망하지만 죄진 것은 아니므로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당당할 것이다.	내 생각을 당당하게 말씀드릴 것이다.
<b>이해해주실 것이며 해결가능하다는 생각</b>	<b>이해해주실 것이라는 생각</b>
처음엔 기절하시겠지만 나중에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행동하실 것이다.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화가 나시겠지만 이해해주실 수 있을 것이다. 자식이니깐.	나중에 다 이해하실 것이다.
<b>기타 반응</b>	<b>기타 반응</b>
결혼하라고 하실 것이다. 아무렇지도 않다. 그저 웃으실 것이다.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시키실 것이다.	다렸구나 하고 생각하실 것이다.



과 부모님과과의 성적주체에 관한 의사소통 정도 등을 알아보기 위해 결혼 전 성관계에 대한 부모님의 반응에 대해 질문하였다.

만일 부모님이 자신이 결혼 전에 이성과 성관계를 한 것을 알게 된다면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날 것이라는 응답이 대부분으로 응답한 미혼 성인남녀 모두 부모님에게는 성과 관련된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으며 이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비추어 볼 때 현재의 미혼 성인남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가족내에서 실제적이고 바람직한 성정체성 확립에 대한 교육은 거의 받지 못하였으며 현재 성에 대한 우리나라 부모자녀간의 의견차이가 매우 크고 대화부재가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머니와 자녀간의 결혼전 성관계에 대한 논의나 성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 및 자녀가 인지하는 메시지는 자녀의 직접적인 성행위 여부와 피임법 사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Heisler, 2001; Jaccard, Dittus & Gordon, 1996; Jaccard & Dittus, 2000; Miller, Levin, Whitaker & Xu, 1998; Schreck, 1999)에 견주어보았을 때 많은 우려가 예상된다.

그리고 가족내에서 부모와 자녀의 성적주체에 관한 대화는 자녀의 위험한 성행위를 감소시키며 (Fisher, 1989; Jaccard, Dittus & Gordon, 1996; Kallen, Stephenson & Dougherty, 1983; Miller, *et al.*, 1998), 자녀의 성행동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점(Dittus, Jaccard & Gordon, 1999; Schreck, 1999)을 고려해 볼 때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 부재의 현 상황은 심각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족내에서 아들과 딸에게 기대하는 성적 기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족내에서의 성별에 따른 성에 대한 인식의 차별화가 사회전체의 성가치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가족내에서의 적절하고 바람직한 성교육과 자유로운 성적 주체에 대한 의사소통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 다시 느낄 수 있었다.

다행이 몇몇 소수의 여성 응답자들이 처음엔 힘

들겠지만 부모님과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좁혀보려고 하는 의지들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바람직한 성적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앞으로 가족 안에서의 성교육은 부부간, 부모자녀간 등 대상별로 또한 연령별로 차별화하여 궁극적으로 성인이 되어 자신의 몸에 대한 주인의식과 성적 의사소통과의사결정 능력을 기르는데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4. 성교육 영역

지금까지 어떠한 내용과 방법으로 성교육을 받았는지와 앞으로 무엇을 알고 싶는지 질문한 결과는 지금까지 성교육의 잘못된 점을 깨닫게 해주고 앞으로 성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였으며, 남녀 학생이 분리되어 비디오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받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으로는 인공유산 하는 장면을 들었다. 그러나 무슨 내용을 교육했는지 왜 그랬는지에 대해 기억하지 못했으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성교육이란 단순히 어느 시기에 하지 말아야 할 금기사항을 가르치거나 생물학적인 면만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이 인간의 일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왜 소중하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교육내용은 머리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함께 받아들여 진정으로 자신의 것이 되어야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미혼 성인남녀들이 대답한 앞으로 바라는 성교육에서도 그러한 요구가 담겨 있었다. 이들은 실제적인 교육, 현실적인 교육을 원했는데 특히 미혼 성인남녀라는 발달단계의 특성상 이성교제시에 일어나는 관계 맺기나 심리파악에서부터 실질적인 스킨십과 성관계에 대한 부분까지 어느 한 부분씩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동일한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교육을 요구하고

〈표 9〉 미혼성인 남녀의 사랑유형(%)

변인		사랑유형	낭만적	유평적	동료적	실용적	소유적	헌신적
성별	여성		9.3	2.7	60.5	15.9	9.0	2.7
	남성		38.2	2.8	46.1	4.3	4.3	4.3
	$\chi^2$ value		79.29*** (df=5)					

있었다. 교육은 미리 예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의미가 더욱 크기 때문에 얼마나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정말로 이들이 이야기하고 싶고 원하는 성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귀기울여 교육을 해야만이 진정으로 효율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5. 사랑과 친밀감

사랑과 친밀감에 대한 미혼 성인남녀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사랑유형검사의 결과는 〈표 9〉와 같다.

조사 결과 사랑유형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것은 성별에 따라 사랑유형에 차이가 있다는 조은혜(199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낭만적 사랑의 경우 여성은 9.3% 남성은 38.2%을 보여 남성이 여성보다 낭만적 사랑 유형을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낭만적 사랑은 상대방의 신체적 매력에 강하게 이끌리는 열정적 사랑을 말하며 신체적 접촉을 통한 성적 친밀감을 강하게 원하는 유형(정현숙, 유계숙, 2002)으로 이는 남성들이 이성과 교제를 할 때 여성의 외형에 가치를 두며 여성에 비해 신체적 접촉을 더 자유롭게 생각하며 관심이 많다는 일반적인 사회통념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동료적 사랑은 여성 60.5% 남성 46.1%, 실용적 사랑 유형은 여성 15.9%, 남성 4.3%, 소유적 사랑은 여성 9.0%, 남성 4.3%으로 나타나 이 3가지 유형은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용적 사랑에서 남녀 차이가 큰 이유는 여성의 경우 연령이 높아지면서 이성교제 할 때 남성보다 이른 나이에 결혼을 염두에 두기 시작하고 이전 20대

초반시기와는 달리 자신에게 어울리는 사회적 배경을 지니며, 흥미, 관심사, 가치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상대를 물색한 후 사랑을 하게 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미혼 성인남녀 대상의 섹슈얼리티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이론적 근거로 관련 문헌을 고찰하였으며 현재 이들의 실제적인 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문장 완성검사와 사랑유형검사를 실시·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성의식 및 성행동, 피임과 인공유산, 사랑과 친밀감, 성교육, 가족환경의 영향 영역으로 나누어 파악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먼저 조사한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과거에 비해 남녀의 성에 관한 의식이 개방적으로 변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별에 따른 성의 이중기준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강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먼저 성의식과 성행동 영역에서 여성들은 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전무하였으며 남성에 비해 자신의 성적 반응에 대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순결과 처녀막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남성위주의 성문화에 대한 억압이라고 여겨 강하게 비판하고 있었으며 남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받기를 원하고 있었다. 결혼 전 성관계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많았지만 남성에 비해 여성은 책임과 결혼을 결정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있었다.

다음으로 피임과 인공유산 영역에서는 남녀 모두 피임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며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인공유산에 대해서는 남녀모두 필요악이라는 동일한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미혼성인남녀의 섹슈얼리티 형성에 대한 가족환경의 영향에서는 현재 가족내에서 바람직한 성가치관 형성을 위해 성을 주제로 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모자녀간에 성에 대한 인식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교육 영역에서는 미혼성인남녀 모두 지금까지 받은 성교육은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으며 앞으로 더욱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 사회적 지원을 원하고 있었다. 사랑과 친밀감에 대한 영역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사랑유형이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에서와 같이 본 연구는 섹슈얼리티라는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개념을 주제로 사회문화적 맥락안에서 그 의미를 실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다차원적으로 접근하였다. 모호한 의미가 강한 섹슈얼리티 영역을 정서적 차원의 사랑과 친밀감과 실제적 차원의 성의식과 성행동, 피임과 인공유산, 그리고 교육적 차원의 성교육, 마지막으로 관계적 차원의 가족환경으로 세분화하여 구체성을 높이는 시도를 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아직은 생소한 비구체적이고 비논리적인 의미가 강한 섹슈얼리티를 주제로 자유로운 의견 수렴은 용이하나 객관화의 특성이 부족한 문장완성검사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미혼성인남녀 대상의 섹슈얼리티 연구의 필요성을 전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섹슈얼리티의 다양한 인식 코드를 모두 다 표현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또한 아직까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성에 대한 전통적인 사회문화적 가치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함으로써 미혼 성인남녀의 입장에 치우쳐 결과를 해석하였다는 우려점도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 미혼성인남녀관계를 포함한 가족관계, 인간관계에서의 성에 대한 중요성이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의 성에 대한 통찰력의 요구 등을 감안해 볼 때, 섹슈얼리티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학문분야별, 대상별, 세대별, 성별 등에 따라

세분화되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매우 중요한 주제라 생각한다.

여기서 현재 가장 시급하게 다루어져야 할 대상은 앞으로 새로운 생식가족을 만들 미혼 성인남녀들로 그들의 섹슈얼리티는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는 미래의 가족생활의 질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섹슈얼리티 분야의 중요한 대상인 미혼 성인남녀에 대한 섹슈얼리티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끊임없는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섹슈얼리티가 형성되므로 앞으로의 섹슈얼리티 연구에서는 주변 환경의 실제적인 영향력 파악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인간의 삶에 중요한 정서적 지지대인 가족안에서 부모님과과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달단계에 따른 다양한 환경과의 관계를 통해서 본인이 무엇을 느끼며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파악해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가족으로부터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 등의 개인 발달단계를 포함한 가족전체의 발달에서 가족과 섹슈얼리티 개념, 정보, 그리고 이슈들을 종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 모아진 내용들은 가족과 사회문화적 맥락속에서 섹슈얼리티를 보는 관점과 주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성적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이해를 통하여 우리는 가족과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예를 들어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성적측면의 변화에 대한 측정도구와 같은 검사도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족내 성별에 따라, 세대간에 따라 섹슈얼리티가 어떻게 정의되고 경험되며 인식되는지에 대한 이해는 결국 생애의 전 과정에 걸친 섹슈얼리티의 형성과 변화의 측면을 읽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많이 이루어진 양적 연구방법이외의 성이라는 주제의 특수성에 알맞은 실제적인 연구방법의 모색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문장완성검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에서 이들의 섹슈얼리티를

다를 때 중요한 요소는 성별에 따른 성에 대한 차이이다. 우리는 앞으로 미혼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섹슈얼리티 연구와 성교육에서 이점을 중요시하여 남녀의 큰 차이가 어떤 요인들과 관련되어 있고, 본인들은 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파악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를 극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성교육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적용시켜야 한다. 이러한 성교육은 일회성에 끝나는 실적위주의 이벤트성 성교육이 아니라 인간의 전생애를 통해 평생 동안 이루어져야 하는 바람직한 섹슈얼리티 형성을 위한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교육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사회분위기에 알맞게 남녀차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섹슈얼리티 형성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 시스템과 지원제도 및 관련 정책 수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 ■ 참고문헌

- 강희선(2001). 한국 대학생의 콘돔사용 설명모형.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박사학위논문.
- 고명숙(1994). 유산으로 인한 기혼여성의 상실경험.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기범(2001). 20대 미혼남성의 성의식 및 성행동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태환, 전광희, 조성남(1996). 미혼여성의 성, 피임, 그리고 인공유산-수출공단지역의 사례 연구-한국인구학, 19(1), 93-122.
- 김경미(2002). 남자중학생에 대한 성교육프로그램 효과검증. 부산대학교 대학원 가정교육과 석사학위논문.
- 김경신(2001). 대학생의 성의식 실태분석을 통한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6(1), 181-201.
- 김경신, 김오남, 윤상희(1997). 미혼 남녀의 사랑과 성에 대한 태도 및 배우자 선택 조건. 대한가정학회지, 35(3), 15-30.
- 김명숙(1992). 성(Sexuality)의식의 남녀 차이에 관한 연구 : 구미 공단 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미중(2000). '기혼여성의 피임행위에 관한 설명모형.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상원(1998). 한국 여성의 성 의식에 관한 계층별 비교 연구. 경기대경기교육논총, 7, 5-72.
- 김성희, 유은광(2000). 인공유산의 여성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인식정도연구-성인남녀 중심으로-. 여성건강간호학회지, 6(1), 166-180.
- 김향숙(2000). 대학생의 애착·사랑유형에 따른 성행동.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현미(1997). 여성주의 성교육을 위한 모색. 한국여성학, 13(2), 123-157.
- 김현희(1999). 90년대 후반 한국 영화 내에서 나타난 여성의 성적 쾌락과 성적 주체성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여성학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혜원, 이혜경(2000). 청소년들을 위한 양성평등 성교육 방향의 모색 : 남녀 고등학생들의 성의식과 성행동 실태에 근거하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5(2), 29-45.
- 남영주, 옥선화(2000). 가족학에서의 섹슈얼리티 연구를 위한 접근방법 모색. 가족관계학회지, 5(1), 113-136.
- 문유선(1994). 미혼 의과대학생들에서 가족기능 역할과 성행동의 관련성. 연세대학교 의예과 석사학위논문.
- 문인옥(1997). 일부 대학생의 성의식 및 성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교육학회지, 14(2), 95-112.
- 문인옥(1998). 대학생의 성태도 및 성행동에 미치는 요인분석. 한국보건통계학회지, 23(1), 149-163.
- 박미숙(2002).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 및 성교육 요구도 비교 분석. 인제대학교 대학원 가족학 석사학위논문.
- 박상화, 한정호(1998). 서울지역 성인 남성의 콘돔 인식에 관한 조사연구. 인구학 연구논집, 11(1), 57-74.
- 박춘화, 박금자(2002). 중학생의 성교육 요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8(1), 124-137.
- 박희성, 이진숙, 박초아, 정민자(1995). 미혼남녀의

- 성행동 실태 및 혼전 성에 대한 태도. 대한가정학회지, 33(6), 11-23.
- 신혜숙(1998). 인공유산에 대한 여대생의 태도 유형. 여성건강간호학회지, 4(1), 78-91.
- 양순옥(2000). 한림대학교 학생의 성(性)이미지와 사회문화적 성역할. 한림대학생생활연구, 11, 41-57.
- 양원정(2002). 학교 성교육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 : 십대의 성교육 경험과 십대 성문화 분석을 바탕으로.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 염연수(1997). 로맨스 문화를 통해 본 여고생의 성의 사회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 염영란(1996).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윤리학적 논쟁과 문제 분석.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2), 203-220.
- 유영주(1999). '가족학이란?', 가족학. 한국가족관계학회편. 도서출판 하우.
- 윤가현(2001). 성문화와 심리. 학지사.
- 이경혜, 고명숙(1994). 여성의 유산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4(2), 157-174.
- 이명화(2000). 성(性)에 대한 청소년의 가치관과 지도방향. 경기교육, 147, 19-24.
- 이숙경(1993). 미혼 여성의 성에 관한 연구-낙태행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 논문.
- 이정은, 최연실(2002). 미혼남녀의 심리경향에 따른 사랑의 유형 분석 : Jung의 심리유형론과 Lee의 사랑유형론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0(3), 137-153.
- 이찬(1997). 한국 여성의 성 행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혜진(1997). 인공유산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이해.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 석사학위논문.
- 임경희(1992). 공단 생산직 미혼 여성 근로자의 성의식과 성문화. 계명대학교 여성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순영(1991). 기혼여성의 인공유산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종권, 김혜린, 장동현, 김주형, 김한경(1994). 미혼남성의 성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 장수정(1998). 20대 대졸 여성의 피임 경험을 통해 본 성적 주체화에 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 석사학위논문.
- 장순복, 이양재, 박순정, 송은일, 서정애, 오윤경(1998). 대학생의 성행태 조사연구. 한국성문화연구소/대한가족계획협회부설.
- 장해성(2001). 한국 사회 20대 남성의 성정체성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장필화(1997). 결혼제도와 성. 한국여성학, 13(2), 41-75.
- 정경자(1990). 피임광고를 통해 본 성문화 일고찰-푸코의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현숙, 유계숙(2002). 가족관계. 도서출판 신정.
- 정희정(2001). 미혼남녀의 성의식 및 성행동에 관한 조사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가족학 석사학위논문.
- 조영미(2001). 한국 페미니즘 성연구의 현황과 전망. 섹슈얼리티 강의. 한국성폭력상담소 엮음. 동녘.
- 조윤정(1995). 여성의 성적 주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성경험을 통한 의식형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조한혜정(1998). 청소년 성문화: 성적 주체로서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14(1), 7-39.
- 차선희(1999). 남녀 대학생의 성문화와 성의식 연구-순결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대구효성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차정화, 전영주(2002). 이성교제 커플의 원가족 건강성과 친밀감간의 관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1), 39-57.
- 최연실(1999). 사랑에서의 사회적 성(性)과 자기개발에 대한 연구 : 미혼 및 기혼 남녀의 면접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2), 55-76.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 전국 출산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여성낙태를 말한다' (2001년 방영작)]에서 인용.
- 한국여성연구소(1999). 새 여성학 강의. 동녘.
- 소아청소년정신건강클리닉(2003). <http://drchoi.pe.kr>
- 경향신문. 2000. 10. 30. '20대 여성 73% '결혼 후에도 맞벌이'.
- 동아일보 2001. 2. 23. '한국 여성들 성형수술 이상열기'.
- 세계일보. 2000. 8. 11. '다큐멘터리 20대.'
- 여성신문. 2003. 6. 27. '태아의 생명인가, 선택의 자율권인가'.
- 한겨레신문. 2001. 6. 20. '미혼여성들이 말하는 성'.
- 한국일보. 2002. 10. 15. '대학생 10명중 6명 '이성간 동거 가능'.
- Adih, W. & Alexander, C. (1999). Determinants of condom use to prevent HIV Infection Among Youth in Ghana.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24, 63-72.
- Agostino, M. B. & Wahlberg, V. (1991), Interruption of pregnancy : motives, attitudes and contraceptive use. *Gynecol Obstet Invest*, 32, 139-143.
- Anthony, G. (1996). 현대 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황정미 · 배은경 번역. 새물결.
- Baele, J., Dusseldorp, E. & Maes, S. (2001). Condom use self-efficacy:effect on intended and actual condom use in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28(5), 421-431.
- Brock, L. J. & Jennings, G. H. (1993). Sexuality education: What daughters in their 30s wish their mothers had told them. *Family Relations*, 42(1), 61-66.
- Campbell, S.M., Peplau, L.A. & DeBro, S.C. (1992). Women, men, and condom:Attitudes and experiences of heterosexual college students. *Psychology of Quarterly*, 16, 273-288.
- Cate, R.M., Long, E., Angera, J.J. & Draper, K.K. (1993). Sexual Intercourse and Relationship Dvelopment. *Family Relations*, 42, 158-164.
- Daniel, F. P., Tom, L., Francisco, A., V. & Stephen, S. (1998), An ecological, risk-factor examination of adolescents' sexual activity in three ethnic group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 660-673.
- Davis, M. & Bibace, R. (1999). Dating couples their relationships: Intimacy and Contraceptive use. *Adolescence*, 34, 1-7.
- Dawn, M. U., Carol, S. A, Clea, A. S. & Lene, L. S. (1999). Neighborhood and family contexts of adolescent sexual activ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920-933.
- Diane, W. (2002). Love, sex and latex, *Essence*, 33(4). New York, 18.
- Dilorio, C., Parsons, M., Lehr, S., Adame, D. & Carlone, J. (1992). Measurement of safe sex behavior in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Nursing Research*, 41(4), 203-208.
- Dion, K. K. & Dion, K. L. (1993). Individualistic and collectivistic perspectives on gender and cultural context of love and intimacy. *Journal of Social Issues*, 49, 53-69.
- Dittus, P. J., Jaccard, J. & Gordon, V.V. (1999). Direct and nondirect communication of maternal beliefs to adolescents: Adolescent motivations for premarital sexual activity.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9, 1927-1964.
- Edgar, C. J. L., Jeffrey, J. A., Sara, J. C., Mindy, N. & Michelle, K. (1999). Understanding the one you love: A longitudinal assessment of an empathy training program for couples in romantic relationships. *Family Relations*, 48(3), 235-242.
- Fisher, T.D. (1989). An extension of the findings of Moore, Peterson, and Furstenberg(1986) regarding family sexual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38-650.
- Foucault, M. (1981). *The history of Sexuality vol. 1; An Introduction*. Harmondsworth; Pelocan.
- Gagnon, J. H. & Simon, W. (1973). *Sexual conduct: the social sources of human sexuality*. Chicago: Aldine.

- Gina, O. (1999). Women's Sexuality Across the Life Span: Challenging Myths, Creating Meanings. *The Journal of Sex Research*, 36(4), 413-414.
- Harding, C. (2001). *Sexuality -psychoanalytic perspectives*. Philadelphia PA 19106: Taylor & Francis. Inc.
- Heisler, J.M. (2001). The "Traditional sexual script" examining the content of parent-child sexual communication. Michigan State University Department of communication Doctor of Philosophy.
- Hutchinson, M. K. & Cooney, T. M. (1998). Pattern of Parent-Teen Sexual Risk Communication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 *Family Relations*, 47, 185-194.
- Jaccard, J. & Dittus, P. J. & Gordon, V.V. (1996). Maternal correlates of adolescent sexual and adolescent sexual behavior.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28, 159-165.
- Jefferson, E.A. (2002). Sex 101 college students increasingly casual about bedfellows, just as casual about condoms. *Denver Post*. Denver, Colo.: Oct24: p F01.
- Joan, A. J., Karen, S. & Myers, B. (1998). Systems theory and its applications to research on human sexuality. *The Journal of Sex Research*, 35(1), 72-87.
- Kelly, J. & Bazzini, D.G. (2001). Gender, Sexual Experience, and the Sexual Double Standard :Evaluations of Female Contraceptive Behavior. *Sex Role* 4(11/12), 785-799.
- Laurie, B. M., Brian, A. G., Richard, C. P. & Ellen, F. B. (1998). Intimacy and sexual satisfaction in unmarried couple relationships: A pilot study. *The family journal;counseling and therapy for couple and family*, 6(1), 33-39.
- Laurie, L. M., Suzanne, B. & Shannon, R. Z. (2000). Adolescent sexuality and parent-adolescent processes: Promoting healthy teen choices. *Family Relations*, 49(2), 143-154.
- Long, E. C. et al. (1999). Understanding the one you love: A longitudinal assessment of an empathy training program for couples in romantic relationships. *Family Relations*, 48(3), 235-242.
- Luster, T. & Small, S. A. (1994a). Factors associated with sexual risk-taking behaviors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622-632.
- Luster, T. & Small, S. A. (1994b). Adolescent sexual activity: An ecological, risk-factor approa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181-192.
- Matthew, H. & Donn, B. (1998). Using social learning theory to explain individual differences in human sexuality. *The Journal of Sex Research*, 35(1), 58-71.
- McKinney, K. & Sprecher, S.(Eds.) (1991). *Sexuality in close relationships*. Hillsdale, NJ:Erlbaum.
- Michelle, B. (2001). Parents as sexuality educators for their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IECUS Report*, 29(3), 14-19.
- Miller, B. C. (1993). Families, Science, and Values; Alternative Views of Parenting Effects and Adolescent Pregnanc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7-21.
- Miller, B. C. & Moore, K. A. (1990), Adolescent Sexual Behavior, Pregnancy, and Parenting: Research through the 1980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1025-1044.
- Miller, K., Levin, M.L., Whitaker, D.J. & Xu,X. (1998). Pattern of condom usage among adolescents :The impact of maternal-adolescent communication.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8, 1542-1544.
- Monica, A. L. (1998), Symbolic interactionism and the study of sexuality. *The Journal of Sex Research*, 35(1), 44-57.
- Murray, C. I. & Leigh, G. K. (1995). Families and Sexuality. *Research and Theory in Family Science*. Cole Publishing Inc.

- Paige, D. M., Don, M. & Maggie, M. (2001). Adolescent premarital sexual activity, cohabitation, and attitudes toward marriage. *Adolescence*, 36, 601-609.
- Pete, J. M. & DeSantis, L. (1990). Sexual Decision Making in Young Black Adolescent Females. *Adolescence*, 25, 145-154.
- Ridley, J. (1993). Gender and couples: Do men and women seek different kinds of intimacy? *Sexual and Marital Therapy*, 8, 243-253.
- Robin, G. S., Paul, P. & Diane, B. (1997). How peer education changed peer sexuality educators' self-esteem, personal development, and sexual behavior,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45, 211-217.
- Schaefer, M. T. & Olson, D. H. (1981). Assessing intimacy: The PAIR inventor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7, 47-60.
- Schreck, L. (1999). Adolescent sexual activity is affected more by mothers' attitudes and behavior than by family structure.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31, 200-201.
- Steele, J. R. (1999). Teenage Sexuality and Media Practice; Factoring in the Influences of Family, Friends, and School. *The journal of Sex Research*, 36(4), 331-341.
- Sternberg, R. J. (1986). A triangular theory of love. *Psychological Review*, 93, 119-135.
- Stevi, J. & Scott, S. (1996). *Feminism and Sexualit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Susan, N. W. (2000). Sexuality education: Our current status, and an agenda for 2010.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32(5), 252-254.
- Thornburg, H.D. (1982). *Development in adolescence (2nd)*.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Youniss, J. & Smollar, J. (1985). *Adolescent relations with mothers, fathers, and friend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Weis, D. L. (1998a). The Use of Theory in Sexuality Research. *The journal of Sex Research*, 35(1), 1-9.
- Weis, D. L. (1998b). Conclusion: The State of Sexual Theory. *The journal of Sex Research*, 35(1), 100-114.
- Whitbourne, S. K. & Ebmeyer, J. B. (1990). *Identity and intimacy in marriage: A study of couples*. New York; Springer-Verlag.

(2003년 10월 29일 접수, 2004년 3월 8일 채택)